

일 지역 고등학생의 가족기능, 공감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최희정¹ · 임은선² · 유장학³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¹, 해전대학교 간호학과², 인천재능대학교 간호과³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ing, Empathy, and Aggression by High School Students

Choi, Hee Jung¹ · Lim, Eun Sun² · Yoo, Jang Hak³

¹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Mokpo

²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Hongseong

³Department of Nursing, JEI College, I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functioning, empathy and aggression by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The survey participants were 467 high school students from M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9 to December 7, 2012 an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a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es, and an Aggression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samples t-test, ANOVA,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ajority of the subjects were 2nd graders (42.0%) and female (57.2%). 59.7% of the subjects had religion, 84.8% were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The mean ages of their fathers and mothers were 49.90±0.20 and 46.85±0.19 respectively. Aggression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negative correlation with family functioning and empath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aggression was empathic concern. Empathic concern, family cohesiveness, perspective taking, personal distress and gender accounted for 16.7% of the variance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aggressiveness reduction programs for high school students that consider their family functioning and empathy.

Key Words: Aggression, Family, Empathy, Student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의 청소년 범죄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2012년 우리나라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죄자의 비율

은 4.4%, 범죄유형은 폭력범과 강력범이 30.8%로 소년인구 감소를 감안했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07년 소년범죄 재범율이 31.5%에서 2011년 40.5%로 증가하여 점차 상승화되어 가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 중 16~18세 연령대 범죄비율은 2007년 51.5%에서 2011년 72.8%로 크게 증가하여 고등학생 연령대의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어: 공격성, 가족, 공감, 학생

Corresponding author: Yoo, Jang Hak

Department of Nursing, JEI College, 178, Jaeneung-ro, Dong-gu, Incheon, Seoul 401-714, Korea
Tel: +82-32-890-7406, Fax: +82-32-890-7329, E-mail: janghryu@jeiu.ac.kr

투고일: 2013년 11월 29일 /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0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GEF], 2012).

이러한 청소년기의 가정과 학교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공격성은 폭력, 약물남용, 자살, 범죄 등과 같은 문제 행동들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하며, 또한 파괴적인 행동이 내포된 분노, 적의, 증오, 불안 및 원한으로 인해서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나 손상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이기도 하다(Kim & Kim, 2004; Min et al., 1998).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변화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반항적, 공격적 행동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고, 자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유발하고, 이러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청소년과 가족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Coie, Lochman, Terry, & Hyman, 1992; Kim & Kim, 2004).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여가시간부족과 입시불안감으로 대변되는 '입시지옥'라는 독특한 개인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공격성은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Kim, D. W., 2008; Song et al., 1999), 성장과정 중에 공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중단되는 불연속성으로 인해 예방이나 감소의 여지가 있으므로 공격성의 발달과 증감에 영향요인을 찾아내고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Shin, Kwak, & Kim, 2012).

청소년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전, 성격, 스트레스,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 부모·자녀관계나 양육방식 등의 가족기능, 경제적 상황, 공감능력 등이 알려져 있다(Chae, 2005; Kim & Kim, 2004; Kim, K. A., 2008; Min et al., 1998; Olson, Bates, Sandy, & Lanthier, 2000). 이 중에서 공감능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돕고, 폭력행동이나 비행행동을 감소시켜 사회적 적응이나 성취에 영향하므로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s, 1980; Lee & Lee, 2011).

이러한 공감능력은 유년기 부모로부터 이해받고 수용된다는 애착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므로 부모·자녀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하는 경우, 비행행동이나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Park & Lee, 2008), 청소년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사회화 방법을 익히며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는 가족지지는 이들의 공감능력에 중요한 요소로서 비효율적인 부모의 지지 정도는 청소년기 낮은 공감능력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Wied, Gispens-de Wied, & Van Boxtel, 2010; Nurco & Lerner, 1999; Van der Graaff, Branje, De Wied, &

Meeus, 2012).

Oetting, Deffenbacher와 Donnermeyer (1998)는 일차적 사회화 이론에서 어떠한 사회화 자원과 밀착되어 있는지에 따라 청소년들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분노, 공격성 등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건강한 가족 내에서 형성된 결속력이나 애착관계는 규범과 규칙을 내면화하게 하므로 공격적 행동의 기회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가족에게서 받은 지지가 애착을 형성하고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하므로 가족지지와 공감능력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한다고 생각되나, 아직 두 요인과 하위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공격성을 연구한 것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가족기능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Kim과 Kim (2004)은 중·고등학생과 비행·범죄 청소년 2,111명 대상의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고, Chae (2005)는 중·고등학생 6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언어적 공격성에는 양육방식, 수동적 공격성에는 친밀감과 양육방식이 영향하므로 가족기능이 공격성에 영향한다고 하였으며, Yun과 Shin (2013)은 초·중학생 680명 대상의 연구에서 가족구조 보다는 개인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공격성에 영향하므로 가족기능과 학교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Shin (2004)은 초등학생 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자녀관계가 인간지향적 관계와 지위지향적 관계에서 공격성의 차이가 없었으므로 발달수준에 따라 지위지향적인 관계도 자녀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하였고, Chae (2005)는 가족의 기능성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지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이나 자아존중감이라고 하여 기존의 공격성을 형성하는 가족기능 관점과 다소 상이한 주장을 하였는데, 따라서 실제 공격성이 발현되는 고등학생 시기에 가족기능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공감능력과 공격성의 관계를 파악하므로 고등학생들의 공격성을 경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간호학적으로 고등학생들의 공격성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과 공격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 하위영

역과 공격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공감능력, 공격성을 파악한다.
-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공감능력, 공격성을 파악한다.
-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 하위영역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 하위영역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들의 가족기능, 공감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기능, 공감능력이고, 종속변수는 공격성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M시에서 편의추출로 선정된 고등학교 3곳에서 설문이 가능하였던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의사소통과 설문지를 읽고 쓰는데 장애가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고등학생 474명 중 응답이 불충분하였던 7부를 제외한 467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α 를 .05, 검정력(1- β)을 .95, 예측변수 15개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99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의 표본수는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가족기능

가족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가족의 능력이며(Olson, Portner, & Lavee, 1985),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1985)이 개발한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III)를 Kim (1990)이 청소년의 가족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번

역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 2개의 하위영역으로 각 영역은 10개 문항으로 총 20문항이 구성되어지고,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결속력과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을 조사한 Kim (1990)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4였다.

2) 공감능력

타인의 주장, 감정, 생각에 동조하여 자신도 동일한 느낌이나 마음을 갖는 것이며(Min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Davis (1980)가 개발한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im (1997)이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번역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관점취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상상하기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각 영역은 7개 문항으로 총 28문항이 구성되어지고,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부정 문항 4개는 역산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감능력을 조사한 Lee와 Lee (2011)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74였다.

3) 공격성

분노, 적의, 증오, 불안 및 원한으로 인해서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나 손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이며(Min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erry (1992)가 개발한 Aggression Questionnaire를 Jung (1996)이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을 조사하기 위해 번역하고 수정한 공격성 척도를 본 연구자가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단어나 어구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지고, 신체적 공격성 6문항, 언어적 공격성 6문항, 적의성 5문항, 분노 4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조사한 Jung (1996)의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α =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0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2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M시 소재 고등학교 3곳의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해 수행되었다. 먼저 설문 내용에 대해 학교장과 교감의 승인을 받고, 보건교사, 담임교사

에게 연구의 목적, 설문지 작성요령과 유의 사항, 연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윤리적인 고려를 위해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는 보건교과 수업 후 또는 담임교사의 조희나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문 내용의 목적, 설문지의 익명성, 비밀보장을 약속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 연구참여 동의서를 맨앞에 첨부하였고, 연구참여 동의서에는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구참여 동의서에서명한 경우만 자기보고법으로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작성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가족기능, 공감능력, 공격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공감능력, 공격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 Ma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고, 가족기능, 공감능력, 공격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

relation Coefficient로, 공격성에 미친 효과는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결과, 남학생 42.8%, 여학생 57.2%로 여학생이 많았고, 2학년 42.0%, 종교가 있는 경우가 59.7%, 양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가 84.8%, 부모님의 교육정도는 양부모님이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9.9%, 아버지 직업이 있는 경우가 85.2%, 어머니 직업이 있는 경우가 59.7%, 아버지 평균나이는 49.9±0.20세, 어머니 평균나이는 46.9±0.19세, 가족기능 평균은 72.4±0.62, 공감능력 평균은 3.4±0.02, 공격성 평균은 2.4±0.03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 공감능력, 공격성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가족기능, 공격성, 공감능력을 분석

Table 1. Difference of Family Functioning, Aggression, and Empathy according to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 or M±SD	Family functioning			Aggression			Empathy		
			M±SD	F/H/r/t	p [†]	M±SD	F/H/r/t	p	M±SD	F/H/r/t	p
Gender	Male	200 (42.8)	72.6±0.88	0.321	.748	2.5±0.04	1.943	.053	3.3±0.03	-1.704	.089
	Female	267 (57.2)	72.2±0.87			2.4±0.04			3.4±0.02		
Grade	1st	82 (17.6)	73.9±1.44	0.929	.396	2.4±0.07	1.873	.155	3.3±0.03	1.597	.204
	2nd	196 (42.0)	72.5±0.89			2.5±0.04			3.3±0.03		
	3rd	189 (40.4)	71.5±1.06			2.4±0.05			3.4±0.03		
Religion	Have	279 (59.7)	73.1±0.79	1.558	.120	2.4±0.04	-0.561	.575	3.4±0.02	0.898	.370
	None	188 (40.3)	71.2±1.00			2.4±0.04			3.3±0.03		
Living together	With parents	396 (84.8)	73.0±0.66 ^a	6.730	.035	2.4±0.03	0.391	.822	3.3±0.02	2.241	.320
	Single parent	56 (12.0)	68.7±2.01 ^b		a > b	2.4±0.08			3.3±0.05		
	Other relatives	15 (3.2)	69.4±3.73			2.4±0.21			3.4±0.10		
Education level of parents	≤ Highschool (both)	233 (49.9)	71.3±0.86	2.459	.087	2.5±0.04	1.029	.358	3.3±0.02	0.419	.658
	≥ College (either of)	112 (24.0)	72.1±1.25			2.4±0.06			3.4±0.03		
	≥ College (both)	122 (26.1)	74.6±1.28			2.4±0.06			3.4±0.04		
Father's occupation	Have	398 (85.2)	72.4±0.67	0.107	.915	2.4±0.03	-0.044	.965	3.3±0.02	0.514	.607
	None	69 (14.8)	72.2±1.70			2.4±0.08			3.3±0.04		
Mother's occupation	Have	279 (59.7)	73.1±0.84	1.389	.166	2.4±0.04	0.105	.916	3.4±0.02	0.794	.428
	None	188 (40.3)	71.3±0.92			2.4±0.04			3.3±0.03		
Father's age		49.9±0.20									
Mother's age		46.9±0.19									
Total			72.4±0.62			2.4±0.03			3.4±0.02		

[†]Mann-whitney.

한 결과, 동거가족에 따라 가족의 기능에서만 차이가 나타났고($H=6.730, p<.035$) Man-Whitney U test를 통해 하위 요소를 비교한 결과, 양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73.0 ± 0.66)에 양부모 중 한분과 거주하는 경우(68.7 ± 2.01)보다 가족기능이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3. 대상자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과 공격성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기능과 공격성은 역상관관계를 보였고($r=-0.248, p<.001$),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결속력($r=-0.252, p<.001$)과 적응력($r=-0.228, p<.001$) 모두 공격성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감능력과 공격성도 역상관관계를 보였고($r=-0.139, p=.003$),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인 관점취하기($r=-0.224, p<.001$)와 공감적 관심($r=-0.272, p<.001$)은 공격성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개인적 고통($r=0.155, p=.001$)은 공격성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2).

4. 대상자의 가족기능 및 공감능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가족기능과 공감능력의 하위영역 및 일반적인 특성이 공격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감적 관심($\beta=-0.144, p=.002$), 가족의 결속력($\beta=-0.195, p<.001$), 관점취하기($\beta=-$

$-0.174, p<.001$), 개인적 고통($\beta=0.207, p<.001$), 성별($\beta=-0.089, p=.039$)이 공격성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요인은 대상자의 공격성에 대해서 16.7%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Table 3).

논 의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생들은 남학생 42.8%, 여학생 57.2%로 여학생들이 조금 많았으나, 2학년이 42.0%로 가장 많았고, 84.8%가 양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었으며, 85.2%의 아버지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고등학생 집단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취업형태를 구분하지 않아서 59.7%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2년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가 전체 가구 중 43.5%를 차지한다는 면에서 본 연구가 다소 높게 조사된 면이 있지만(Statistics Korea, 2012), 맞벌이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들의 공감능력과 하위영역인 공감적 관심과 관점취하기는 공격성과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공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공감적 관심과 관점취하기로 나타났다. Davis (1980)는 공감적 관심을 타인이 경험하고 있는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동정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라고 하면서 아동기에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의 상황을 인식하다가 타인지향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취하기 기술을 통해

Table 2. The Correlations among Family Functioning, Aggression, and Aggression in the Subjects

Variable	Family functioning			Empathy				
	Total	Family cohesiveness	Family adaptability	Total	Fantasy	Perspective taking	Empathic concern	Personal distress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ggression	-0.248 ($<.001$)	-0.252 ($<.001$)	-0.228 ($<.001$)	-0.139 (.003)	-0.054 (.242)	-0.224 ($<.001$)	-0.272 ($<.001$)	0.155 (.001)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the Aggression

Variable	R ²	β	t	p
Empathic concern	.074	-0.144	-3.062	.002
Family cohesiveness	.039	-0.195	-4.416	$<.001$
Perspective taking	.026	-0.174	-3.554	$<.001$
Personal distress	.020	0.207	4.525	$<.001$
Gender	.008	-0.089	-2.067	.039

Total R²=16.7.

서 개발할 수 있으므로 공감적 관심과 관점취하기는 연관되어 발달한다고 주장하였고, Jo와 Lee (2010)는 공감적 관심과 관점취하기는 타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상황을 정확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서 친사회적 행동의 필수요인이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공감적 관심과 관점취하기가 공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두 요인간의 상호 연관성이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Chung (2010)은 청소년의 공감 수준은 공격성과 직접적인 역상관관계를 가지므로 공감수준이 낮은 경우, 대인관계 문제, 도움행동과 같은 이타행동의 부재, 대인간 폭력 및 공격성 등의 문제로 나타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공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지지한다. 공감능력은 부모에 의해 이해받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공감적인 정서를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이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되면서 공감능력이 더욱 발전된다는 점에서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향상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들에게 관점취하기를 통한 공감적 관심 훈련으로 공격성을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Lee & Lee, 2011).

또한 공감능력의 하위영역에서 개인적 고통과 공격성은 순상관관계를 보였고, 개인적 고통은 대상자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Davis (1980)는 타인의 불행한 상황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 지는 것을 개인적 고통이라 하면서 관점취하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고통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공감능력의 다른 하위영역과 구별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Feshbach와 Feshbach (1982)는 공감을 위해서 감정을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타인과 정서적으로 혼합되는 경우 인지적 통제를 넘어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고등학생 시기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이 타인의 불행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인지적 혼란을 겪으면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Jo와 Lee (2010)는 개인적 고통은 친사회적 행동과 심리적 안녕감과 역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타인의 불행이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도움행동 보다는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적 고통의 경험이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대상자의 공격성과 역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결속력만이 공격성에 영향요소로 나타났다. Olson 등(1985)은 가족 결속력은 가족원들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상호의존성과 자율

성의 조화 속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부분이고, 적응력은 긴장 상황에서의 구조나 역할, 규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나타내는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하였는데, Koestner, Franz와 Weinberger (1990)는 아동의 행동에 관용을 보이거나, 공격성에 인내해 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양육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머니가 자신의 역할을 만족스러워 하는 것과 같이 가족의 정서적, 구조적 부분 모두가 공감능력과 연관되어 아동의 인격을 형성한다고 하였고, Olson 등(2000)은 자녀가 부모에게 느끼는 따뜻함이나 애정과 같은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기 표출되는 문제행동의 예측요인이라고 하여 어머니가 아동에게 갖는 정서적인 측면이 아동의 문제 행동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결국 청소년기 인격형성 과정에서 가족의 정서적, 구조적 부분 모두가 중요하나, 특별히 문제행동은 가족의 정서적인 지지부족에 기인한다는 이러한 기존 연구는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 양부모님과 동거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가족기능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가. 이에 대해서 Van der Graaff 등(2012)은 청소년들이 인식한 부모의 지지정도는 이 시기 공격성 형성에 중요한 예측요인이라고 하면서 비효율적인 부모의 지지는 비행행동이나 문제행동과 연관성이 높다고 하였고, Nurco와 Lerner (1999)는 청소년들과 건강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강한 결속력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익히고 규범화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결국 본 연구결과는 편부모보다 양부모님과 같이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입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양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지가 이들의 공격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별은 공격성에 영향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 Crick 등(2006)은 생물학적 차이도 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공격성이 더 용인되기 때문에 공격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Sim (2007)은 성별에 따라 공격성의 종류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남성의 경우 외현적 공격성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결국 본 연구에서 성별은 생물학적 차이와 사회적 학습요인에서 기인하여 공격성에 영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공격성 도구는 성별의 차이를 반영한 공격성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공격성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공감

적 관심이나 관점취하기, 개인적 고통, 가족 결속력은 모두 가족의 정서적 지지 측면과 연관성을 가지는데, Oetting 등 (1998)은 청소년기 동안 가족, 학교, 친구들이라는 일차적 사회화원들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규범이나 일탈된 행동을 익히게 되므로 어떠한 사회적 자원과 밀착되어 있는지에 따라 청소년들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분노, 공격성 등 문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개인의 일탈행동은 가정에서 기인한다는 일사적 사회화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애정이나 따뜻함을 느끼면서 이해받고 수용되는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기 공격성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면 점에서 이러한 일차적 사회화 이론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편의 추출된 일개 시의 고등학생들에 대한 조사연구만을 시행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고, 변수들이 갖는 설명력이 16.7%로 낮은 수준이어서 공격성 영향요인을 본 연구를 통해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였으므로 향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을 추가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고등학생 467명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공감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결과, 가족기능과 공감능력은 공격성과 역상관관계를 보였고, 공감적 관심, 가족의 결속력, 관점취하기, 개인적 고통, 성별이 공격성에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가족기능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공격성을 저하시키기 위한 간호중재 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미 공격성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였던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족과의 결속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하거나, 대상자들이 타인의 관점을 되돌아보면서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는 것은 이들의 공격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폭력과 연관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REFERENCES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hae, Y. G. (2005). The influence of family functioning, marital conflicts, and spirituality well-being on aggression in adolescence. *Family and Culture, 17*(2), 189-209.
- Chung, M. S. (2010). The effects of empathy training group art therapy on adolescents with histories of school violence: Focusing on the variables of emotional empathy and aggression. *Studies on Korean Youth, 21*(4), 51-77.
- Coie, J. D., Lochman, J. E., Terry, R., & Hyman, C. (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5), 783-792.
- Crick, N. R., Ostrov, J. M., Burr, J. E., Cullerton-Sen, C., Jansen-Yeh, E., & Ralston, P.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pre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254-268.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The Journal Supplement Abstract Service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3), 85-104.
- De Wied, M., Gispen-de Wied, C., & Van Boxtel, A. (2010). Empathy dysfunc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isruptive behavior disorders. *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 626*(1), 97-103.
- Feshbach, N. D., & Feshbach, S. (1982). Empathy training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Potentialities and limitations. *Academic Psychology Bulletin, 4*(3), 399-413.
- Jo, H. I., & Lee, M. H. (2010). The mediating effect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1), 140-159.
- Jung, D. H. (1996). *A buffer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chool stress and maladjust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Kim, D. W. (2008). A study on the types of leisure among senior high schooler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2*(3), 41-57.
- Kim, K. A. (2008).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s fluctuation: Three years longitudinal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H. S., & Kim, H. S. (2004). Aggression in Korean adolescents: Relevant variables and path diagram.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3*(1), 75-85.
- Kim, Y. H. (1990).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ouple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oestner, R., Franz, C., & Weinberger, J. (1990). The family origins of empathic concern: A 26-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709-717.

- Lee, O. S., & Lee, D. G. (2011). The effects of an enneagram group counseling using morning unsupervised learning hours on empath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elf-identity in mal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2*(1), 15-30.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2, December). *The white paper of youth in 2012*. Seoul: Author.
- Min, S. G., Go, K. B., Kim, K. H., Kim, B. H., Kim, I., Kim, J. J., et al. (1998). *Modern psychiatry* (3rd ed.). Seoul: Iljogak.
- Nurco, D. N., & Lerner, M. (1999). A complementary perspective to primary socialization theory. *Substance Use & Misuse, 34*(7), 993-1003.
- Oetting, E. R., Deffenbacher, J. L., & Donnermeyer, J. F. (1998). Primary socialization theory. The role played by personal traits in the etiology of drug use and deviance. II. *Substance Use & Misuse, 33*(6), 1337-1366.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Olson, S. L., Bates, J. E., Sandy, J. M., & Lanthier, R. J. (2000). Early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19-133.
- Park, J. E., & Lee, E. H. (2008). Adolescents' insecure attachments and problem behaviors: The moderating role of empathic 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369-389.
- Shin, H. S., Kwak, Y. M., & Kim, S. M. (2012).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impulsivity i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control and adolescen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2), 347-366.
- Sim, H. O. (2007). A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study on bullying/victimization and overt/relational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6), 1107-1118.
- Song, D. H., Lee, H. S., Kim, L., Kim, C. H., Kim, J. W., & Min, S. K. (1999). A cross-cultural study on psychosocial risk fa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between Koreans and Korean-Russian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8*(5), 944-955.
- Yun, E. K., & Shin, S. H. (2013). Comparis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young adolescents' aggression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3), 321-330.
- Shin, K. H. (2004). The effect of person-oriented interaction and position-oriented interac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on children's empathy, aggression R self-concep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2), 143-159.
- Statistics Korea. (2012). *2012 employment survey by provinces*. Retrieves December 17, 2013, from <http://www.kostat.go.kr>
- Van der Graaff, J., Branje, S., De Wied, M., & Meeus, W. (2012). The moderating role of empathy i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adolescent aggressive and delinquent behavior. *Aggressive Behavior, 38*(5), 368-377.